

# 신태용호 '바이킹 군단' 스웨덴 넘는다

오늘 밤 9시 스웨덴과 F조 첫 경기  
높이·파워 겸비했지만 스피드 약점  
손흥민·황희찬 공격 쌍두마차 출격



'북유럽의 북병 스웨덴을 제물 삼아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2018년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통쾌한 반란을 꿈꾸는 신태용호가 16강 진출 목표의 길목에서 '바이킹 군단' 스웨덴을 만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밤 9시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안네안 데르손 감독이 지휘하는 스웨덴과 F조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스웨덴과 첫 경기는 한국 축구의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전이다.

같은 F조에 2014년 브라질 대회 챔피언 독일이 '절대 1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남은 한 장의 16강행 티켓을 놓고 한국과 멕시코, 스웨덴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신태용호가 스웨덴을 꺾고 승점 3점을 확보한다면 16강 진출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기거나 패한다면 16강 진출로 가는 길은 훨씬 험난해진다.

신태용 감독이 스웨덴과 1차전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도 스웨덴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FIFA 랭킹 24위로 한국(57위)보다 무려 33계단이나 높은 스웨덴은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한다.

역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상

대전적에서도 한국은 스웨덴과 네 번 싸워 2무 2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스웨덴은 특히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네덜란드를 조 3위로 밀어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를 1승 1무를 일축하고 본선에 합류했다.

북유럽 특유의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높이와 파워를 겸비해 한국으로선 힘겨운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1년 넘게 호흡을 맞춘 스웨덴의 포백 수비라인은 뚫기가 쉽지 않은 견고한 방패다.

주장인 중앙수비수 안드레아스 그란 크비스트(크라스노다르)를 중심으로 루드비그 아우구스틴손(브레멘), 빅토르 린델뢰브(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켈 루스티그(셀틱)까지 평균 키 187cm의 장신 수비수 네 명이 버티고 있다.

또 공격진에서는 유럽예선에서 11골을 합작한 마르쿠스 베리(알아인)와 올라 토이보넨(틀루즈)이 투톱으로 나선다.

이에 맞서는 한국은 '손-황 듀오'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잡츠부르크)이 스웨덴의 골문을 시원하게 열어들 공격의 쌍두마차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투톱으로 나선 것만으로도 28일 은두라스전과 1일 보스니아전에서 1골 2도움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은두라스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황희찬은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스웨덴과 대결에서도 황희찬이 상대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며 공간을 열어주



스웨덴 경계 대상으로 꼽히는 '10번' 에밀 포르스베리(왼쪽)와 한국 대표팀 공격수 손흥민.



/AFP=연합뉴스

면 손흥민이 한 방을 쏘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전망이다.

스웨덴의 수비수들이 높이와 파워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 스피드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만큼 뒷공간을 노린다면 득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후반에는 196cm 장신 공격수 김신욱(전북)이나 스웨덴 리그 경험이 있는 문

선민(인천)이 조커로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좌우 날개로는 막내 이승우(엘라스베로나)와 이재성(전북)이 유력한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듀오로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프리카의 달인' 정우영(빗셀 고베)이 호흡을 맞춘다.

골키퍼 장갑은 주전 수문장 김승규

(빗셀 고베)가 끼는 가운데 포백 수비라인을 가동한다면 왼쪽부터 박주호(울산)-김영권(광저우)-장현수(FC도쿄)-이용(전북)이 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현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상대 공격의 핵인 베리-토이보넨의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승부

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스웨덴 공격의 시발점인 에밀 포르스베리(라이프치히)도 경계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같은 F조의 독일과 멕시코는 같은 날 오전 0시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1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지난 15일부터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진행중인 제36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광주체고, 광주여대, 광주시청 여자 선수들이 메달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광주시청 최민선·광주체고 안산 3관왕

대통령기전국양궁 광주선수들 메달 행진

광주시청 최민선(28)과 광주체고 안산(2년)이 제36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에서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최민선은 17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0m(346점), 60m(349점), 70m(342점)에서 모두 1위에 올라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안산은 여고부 30m(358점), 60m(348점), 70m(339점)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안산은 50m(339점)에서 은메달을 보냈다. 50m 금메달은 광주체고 박연경(3년·340점)이 차지했다.

박연경은 7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으며 박세은(광주체고 2년)이 60m 은메달을 획득했다.

## 광주대 U리그 왕중왕전 진출 확정

광주대학교 축구부가 2018시즌 U리그에서 9연승을 기록하며 왕중왕전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

광주대는 지난 15일 전북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열린 U리그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경기에서 조규성(3년)의

여대부에서도 광주여대가 은메달 6개와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

곽진영(4년)이 30m와 70m에서 각각 은메달을, 6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선(4년)은 60m에서 은메달을 보냈다. 또 정시우(2년)는 30m와 5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소담(4년)이 7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실력을 과시했다.

남대부에서는 호남대 김중보(4년)가 90m 금메달(321점)을 차지했다.

단체전과 혼성단체전, 개인전 결승전 경기는 19~20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SBS를 통해 생중계 된다. /최진화 기자

## 전국서 대~한민국 함성 울려 퍼진다

거리응원 무대...광주도 월드컵경기장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열기가 전국 곳곳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마다 대형 거리응원 무대가 마련돼 2002년 4강 신화의 감동과 흥분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거리응원의 성지' 광화문·서울광장에서 동시에 거리응원전을 연다.

광화문·서울광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거리응원이 펼쳐진 곳이다.

응원전은 스웨덴전(18일 오후 9시), 멕시코전(24일 0시), 독일전(27일 밤 11시) 등 조별리그 3경기에 맞춰 열린다.

메인 무대인 광화문광장에는 500인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열정적인 응원전이, 서울광장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가족 단위 응원전이 열린다.

붉은악마 공식 응원가 콘서트도 마련된다. 레오&세정, 설하은 등 경기당 6~7팀의 가수들이 열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독일전에는 인기 개그맨

박명수도 참여한다.

광주·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거리응원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 역시 한국전 3경기 모두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시민응원전이 펼쳐진다. 시민들은 당일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부산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승리의 감격을 안겨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응원전이 열린다. /연합뉴스

## 김국영 코리아오픈 100m 우승 '10초25'

정혜림 여자 100m허들 13초26으로 금메달

광주시청 코리아오픈·KBS배 금7은1 획득

광주시청 김국영(27·광주시청)이 2018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정상에 올랐다.

김국영은 17일 경상북도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2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10초52로 레이스를 마친 2위 김태호(25·파주시청)를 멀찌감치 제쳤다.

하지만 지난해 코리아오픈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10초07)과는 거리가 있었다.

코리아오픈 100m를 마친 김국영은 광주시청팀 계주에 참가, 다시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

김국영은 이날 오후 열린 제4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대학일반부 4x100mR에서 김민준, 이준, 임희남과 호흡을 맞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은 40초07. 2위 한국체대(40초83), 3위 안양시청(42초61)과는 기록 차이가 컸다.

여자 100m 허들에서는 정혜림(31·광주시청)이 2개 대회를 오가며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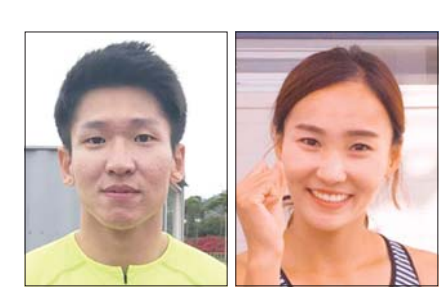
제4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13초14로 대회타이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정혜림은 3일 만에 다시 2018

코리아오픈국제육상에 참가, 또 1위를 차지했다. 정혜림은 13초26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13초58로 결승점에 도달한 에밀리아 노바(인도네시아)를 2위로 밀어냈다.

정혜림은 2018시즌 여자 100m 허들 아시아 랭킹 2위다. 그의 올 시즌 최고 기록은 13초11이다. 올해 정혜림보다 빠르게 달린 아시아 선수는 우수이자오(중국·13초08)뿐이다. 정혜림은 2018년 아시아 2~7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청은 이번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과 KBS배육상에서 모두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를 쓸어들였다.

김국영과 정혜림이 2개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KBS배에서는 배찬미(27), 김민준(29), 김덕



김국영 정혜림

현(33)이 금메달을, 한정미(22)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배찬미는 KBS배대회 세단뛰기에서 13.57m 기록, 자신이 2014년 세웠던 기록(13m24)을 갈아치우고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김민준은 남자 100m에서 10초35로 우승했고 김덕현은 멀리뛰기에서 7.75m로 정상에 올랐다. 여자 400m에 나선 한정미는 56초43으로 오세라(김포시청 55초79)에 이어 2번째로 결승선을 통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진화 기자